

2015
01



이달의 주요뉴스

디지털 언론환경에서의 피해구제방안 심포지엄 개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언론 관련 기구 시찰

특별기고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발레의 역사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75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2015.01 NO.175

Contents

- 03 **신년사**
- 04 **이달의 주요뉴스** 디지털 언론환경에서의 피해구제방안 심포지엄 개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언론 관련 기구 시찰
- 05 **위원동정 · 위원회 소식**
- 06 **특별기고**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발레의 역사
- 08 **위원단상** 웅녀(熊女)에게
- 09 **음식이야기** 대구어(大口魚) 이야기
- 10 **신 동의보감** 배앓이
- 11 **직원마당** 취업이라는 삶의 한 여정을 지나며
- 12 **해외시찰기** 해외 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후기
- 13 **정책심포지엄 중계** 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권, 갱신청구권 새로 도입해야
-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1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 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pac.or.kr
- 모바일웹 m.pac.or.kr
- 조정중재아카데미 edu.pac.or.kr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 · 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 · 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 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
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
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뉴스 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
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 · 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
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新 年 辭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중재위원회 가족과 ‘언론 사람’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의 밝은 기운을 받아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큰 아픔을 겪고 갈등이 빈발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몇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평년보다 8배 폭증한 2만 여 건에 달하는 기록적인 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우리 모두의 힘을 합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거두는 데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중재위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우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새롭게 변화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시대로 발전한 현재의 미디어 상황을 아날로그적 법제만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확산되는 침해적 뉴스에 의한 피해뿐 아니라, 인터넷에 축적되어 영구적으로 침해를 야기하는 위법한 기사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3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쟁 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중재위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회 가족들과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元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

디지털 언론환경에서의 피해구제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014년 12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은 언론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뉴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 뉴스 정보가 신속하게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 역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과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

권의 보호 사이에서 지혜로운 조화를 도모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심포지엄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의 주제발표와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서울 제6중재부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 및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청구를, 사후적인 원인으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갱신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글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이 언론기사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이 참여했다(상세내용 13면 참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언론 관련 기구 시찰

언론중재위원회는 2014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언론 현황, 언론법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에는 김길소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강원중재부)을 비롯해 성지호 중재부장(서울제3중재부), 유의선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이 참여했으며, 최영훈 차장, 윤치경 직원이 수행자로 동행했다.

시찰단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University of Malaya), 말레이시아 TV방송국(Radio Television Malaysia), 말레이시아 연방법원(Federal Court) 그리고 싱가포르 신문사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언론 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언론피해구제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찰단이 말레이시아 국영방송사 RTM(Radio Television Malaysia)의 Jack Nadarjah 프로그램 콘텐츠섹션 부회장(우측 여섯 번째) 및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OMMISSIONERS

신임 중재위원 위촉

2014년 12월 15일자로 중재위원 2명이 위촉됐다. 서울과 전북 각 1명이며, 위 원 임기는 2017년 12월 14일까지이다.

중 재 부	성 명	현 직
서울제6중재부	김재봉	(전)문화일보 수석논설위원
전북중재부	김선남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 우수 법관으로 선정



정재규 부장(전북중재부,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좌)과 박민수 부장(경남중재부,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은 전북지방법변호사회와 경남지방법변호사회가 각각 실시한 '2014년 법관 평가'에서 해당 지역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2014 국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사회 맡아



이연 위원(대전중재부,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은 2014년 12월 5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4 국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은 '재난방송과 방송심의: 방송사와 규제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을 주제로 재난방송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통일부 등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경기중재부 위원)는 2014년 12월 24일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공단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상담, 법률구조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 소식

NEWS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성폭력피해자 보호 기준 보강, 여론조사 보도요건 강화, 기사형 광고 관련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기준에는 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보호 기준을 보완했으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시,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 기존 보도 준수요건에 더하여 응답률과 주요 질문내용도 함께 밝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보도하도록 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일반인 대상 제3차 ADR 교육 실시



위원회 조정중재아카데미는 2014년 12월 11일 일반인 대상 제3차 ADR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언론법제 및 ADR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4년

도 마지막 교육으로서, 교육참가자들은 구율화 전문위원의 언론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강의와 이경순 갈등조정센터 대표의 ADR 기법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포털 및 손해배상 사건 전담중재부 지정 해제

위원회는 포털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1월 1일자로 서울제3, 4중재부의 포털전담중재부 및 서울제8중재부의 손해배상 사건 전담중재부 지정을 각각 해제했다. 위원회는 포털 사건 및 손해배상 사건의 전담 처리를 위해 지난 2011년에 포털 전담중재부를, 2012년에 손해배상 사건 전담중재부를 지정한 바 있다.

사무처 조직 개편 및 사무처 인사

위원회는 1월 1일자로 교육본부를 재편하고, 감사실을 신설하는 등 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

교육본부는 교육 유형별로 ADR 교육과 언론피해구제·예방교육을 담당하던 연속교육팀과 수시교육팀을 교육운영팀과 교육콘텐츠팀으로 변경하여 교육 기획, 관리 운영과 교육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감사실을 신설하여 사무처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위원회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등에 따라 사무처 인사를 실시했다.

- ◇ 승진 (2급) ▲기사심의팀장 이수중 ▲연구팀장 김주용 (3급) ▲접수상담팀 차장 오윤미 ▲예산회계팀 차장 윤치경 ▲조사팀 차장 이홍길
- ◇ 전보 ▲감사실장 정희성 ▲접수상담팀장 구율화 ▲교육운영팀장 여운규 ▲교육콘텐츠팀장 양재규 ▲기획팀장 조준원 ▲부산사무소장 이미경 ▲광주사무소장 안백수 ▲대전사무소장 겸 충북사무소장 황정근(대전주재) ▲경기사무소장 남승균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발레의 역사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발레의 탄생

발레는 르네상스시대에 이탈리아의 궁정 연회에서 탄생하였다. '발레'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춤추다'라는 의미로 무도장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Ballo'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발레는 춤이 아닌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도장에서 행진을 하던 것에 불과했지만 왕실과 귀족이 그들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 즐겼던 사교춤으로 때로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후원을 통해 이탈리아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메디치 가문은 딸인 캐서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를 열네 살의 어린 나이에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와 결혼시키며 발레를

프랑스에 소개했다. 그 후 1617년 루이 13세는 열 여섯 살의 어린 나이에 본인이 직접 안무하여 발레 작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때가 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발레를 만든 사람

은 루이 14세이다. 발레를 매우 사랑한 그는 매일 다섯 시간씩 연습하여 발레 작품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는데 〈밤의 발레〉라는 작품에서 태양으로 등장하여 '태양왕'이라는 별칭을 가진다. 그는 발레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661년 최초의 전문 발레 학교인 왕립무용학교를 만들고 이때 발레의 기본 동작이 정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레 용어가 불어로 통용된다. 이 왕립무용학교는 오늘날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발레 학교와 파리 오페라 발레단으로 발전되어 뿌리 깊은 전통과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즉, 루이 14세를 통해 귀족이 춤추는 아마추어 시대가 끝나고 전문무용수가 배출되고 극장이 생겨나면서 대중을 위한 발레로 발전하기 시작한 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발레 하면 러시아를 떠올리는 이유는 바로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오페라의 인기가 상승하고 발레의 인기가 저물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서구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의 모든 문화를 수입하면서 발레도 들어온다. 이로써 발레의 중심지가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최고 무용수들과 지도교사들도 러시아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 출신의 안무가 마리위스 프티파이다.

그는 1862년 러시아 황실발레단의 안무가로 활동하면서 40년간 러시아 발레를 최일선에서 이끌었는데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 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와 함께 많은 명작 발레를 만들며 웅장하고 화려한 러시아의 고전 발레를 확립하였다. 발레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백조의 호수〉, 러시아 발레의 아카데미한 스타일과 화려함을 갖추어 고전 발레의 교과서라 불리는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크리스마스를 배



태양왕 루이 14세 〈밤의 발레 (Ballet de la nuit)〉(1653)

경으로 한 연말 가족 발레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두까기인형>, 스페인의 열정 넘치는 희극 발레 <돈키호테>, 인도를 배경으로 한 대형 드라마 발레 <라 바야데르>와 같은 클래식 명작 발레가 바로 마리위스 프티파의 손에 의해 러시아에서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레 명작이다.

발레는 치마 길이가 짧아진 역사

발레는 400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데 이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무용수의 신발이다. 왕실에서 시작된 발레는 여성이 아닌 왕과 남성 중심이었지만 낭만 시대에 발레리나들이 발끝에 서면서 여성 무용수가 발레 무대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이때 여성 무용수들은 보다 더 가벼워 보이고 마치 날아다니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뒤꿈치를 올리다가 끝내 발끝 위에 올라서게 된다. 초기에는 특수한 신발이 없이 순간적으로 올라서고 내려오는 것에 불과했지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동작은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가 <라 실피드>라는 작품에서 토 슈즈(Toe Shoes)를 신으며 완벽한 가벼움과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단숨에 우상화되어 애호가들은 그녀를 숭배하고 심지어 어떤 애호가는 그녀의 토슈즈를 구워 먹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해져 내려온다.

토 슈즈 이상으로 발레의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발레리나가 입는 의상 튜튀(Tutu)이다. 발레의 역사는 치마 길이가 짧아진 기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치마 길이만으로 고전 발레, 낭만 발레, 신 고전 발레를 구분할 수 있다. 18세기 이탈리아 발레리나 마리 카마르고는 당시 무대에서 절대로 발목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기고 치렁치렁한 치마를 과감히 발목 위의 길이로 잘라 여성 무용수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의상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 번 짧아지기 시작한 치마 길이는 걷잡을 수 없이 짧아지며 낭만주의 시절에는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의 종 모양 치마인 로맨틱 튜튀로 발전되고 그 후 무릎 밑까지 오는 세미 로맨틱 튜튀, 그리고 다리 전체가 드러나는 클래식 튜튀로 탄생된다. 이 클래식 튜튀는 다리가 완전히 드러나고 작은 실수와 결점까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리가



마리 카마르고 Marie Camargo

예쁘지 않으면 입기 부담스러운 의상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다리가 치렁치렁한 스커트 자락 밑에 갇혀 있었다라면 발레를 천상의 춤으로 격상시킨 화려하고 환상적인 발 동작은 개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필자 소개

미국 워싱턴발레단 솔리스트, 한국무용협회 이사,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이사, 한국발레협회 이사,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유니버설발레단 이사장, USA 국제발레콩쿠르, 잭슨콩쿠르 심사위원 등 역임

수상 경력

1996년 제1회 한국발레협회상 프리마 발레리나상
1999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무용부문)
2009년 한국발레협회 대상
2010년 화관문화훈장
2014년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등 다수

주요 작품

1989년 지젤(러시아 키로프발레단)
1995년 백조의 호수(루마니아 국립발레단, 키로프발레단)
1997년 돈키호테(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1997~1998년 호두까기인형(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1999년 지젤(리틀엔젤스 예술회관)
1999년 창작발레 '심청'(리틀엔젤스 예술회관) 등 다수

웅녀熊女에게

김종 위원
광주중재부



사랑이 기도가 된 땅에서는
형벌도 지고지순한 축복이었으니
오천년의 눈물 그렁한 전설이 흘러서
산을 움직이고 물길을 바꾼다

한사코 아니라 아니라 했으나
하늘을 여는 일은 언제나 폭설이었다
손 모아 쌓아올린 하늘 닿는 돌탑이었다
썩어서 숲을 만든 씨앗들의 간절한 노심초사였다

내 진즉,
씨앗 같은 조선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하늘에 무릎 꿇어 수태한 지난밤은
조선의 억조창생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벌써 맵고 독한 사랑을 앓았느니
폭설의 장막에도 연모의 눈빛을 들키고 말았다

이십 날 하고도 하루라는 물을 건넜다
눈보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萬年세월 조선을 분만할 수 있었다

아무리 차갑고 사나운 북풍한설인들
태중 아기의 발길질을 어찌 막으랴
생살이 찢기고 육천 매듭에서 움트는 고통은
박달나무 푸릇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
세상을 꽃피우고 향기 짓고 열매 맺는 일이었다

태백산 같은 오천년은 거룩하고 장엄했다
눈물은 마늘로 크고 눈보라는 쑥 잎으로 나풀거렸다
마늘과 쑥의 몸에서
만년세월을 거느린 영웅이 자랐다
말갈기 날리며 지평선을 달리고 산맥을 넘었다

아사달의 사직은 사시사철 배가 불렀다
더불어 바람과 비구름이 백성을 돌보고 산천초목을 길렀다

큰곰자리 별에서 콩 한 동이를 불리고
환웅의 높은 하늘에 가득 뿌렸다
끝날 줄 모르는 그리움과 오랜 세월 사귀면서
가슴이 빠개지고 허리가 휘도록 별을 뿌렸다
발톱이 갈라져 나무뿌리가 될 때까지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울었다
오천년을 맞닥뜨린 거친 바람과 맛 살바를 잡았다
젓 먹던 힘이 산을 움직인다 물길이 바뀐다

나, 이제
오천년을 살아낸 박달나무로 서서
말발굽소리 우렁찬 나라의 시작을 다시 낳으리라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되는
대문 넓은 오천년의 하늘을 새롭게 열치리라.

약력

-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1976)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 광주문인협회장, 광주문화재단 이사 등
- 신동아미술제 대상, 민족시가대상, 광주시민대상, 새천년한국 문학대상, 영랑문학대상, 펜문학상, 한국가사문학대상 등 수상
-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훈(2013)
- 시집 「장미원」 등 10권, 저서 「전환기의 한국현대문학사」, 「바다는 방패가 있다」, 「한밤의 소년」(역서) 등 9권

대구어 大口魚 이야기

김영복
전통식생활문화연구원장
칼럼니스트



입이 큰 생선이라 해서 대구어(大口魚)라 부르고, 머리가 커서 대두어(大頭魚)라고도 하는 이 생선은 식성이 좋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청어, 명태, 가자미, 오징어, 문어, 새우 등을 통째로 먹어 치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크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것도 삼켜 버린다.

1815년경 빙허각(憑虛閣) 이 씨가 쓴 『규합총서(閏閣叢書)』에 의하면 “대구어는 다만 동해(東海)에서 나고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문헌(文獻)에 없으나 중국 사람들이 진미(珍味)이며, 북도(北道) 명천(明川)의 건대구(乾大口)가 유명하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구어는 한대성 심해어로 겨울철 산란기에 내만(內灣)으로 옮겨 오는데,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 남해, 오힌크해, 베링해, 미국 오리건주 연안까지 분포되어 서식하고 있다.

옛날부터 진해의 옛 지명이었던 웅천의 가덕동 일대 즉 속칭 ‘깡이바다’의 대구어를 제일로 여겼다. 이 ‘깡이바다’는 대구어의 산란장으로 유명했는데, 이곳에서 12월과 1월까지 겨울철에 잡히는 무게 2관(貫) 이상 나가는 대구어를 일명 “누렁이”라는 애칭을 붙여 최상급으로 여겼다 한다.

조선 정조 때 간행된 『공선정례(貢膳定例)』는 각종 공선(貢膳) 진상품의 물목(物目)을 적은 책인데, 건대구어(乾大口魚)·반건대구어(半乾大口魚)·대구어란해(大口魚卵醃<알젓>)·대구고지해(大口古之醃<이리젓>) 등이 포함돼 있다. 『태조실록』에서 『중종실록』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매년 10월 천신 품목으로 “웅천의 대구어를 진상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깡이바다의 도미, 청어, 대구어의 맛을 못 잊어 진해를 떠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대구어는 겨울철에 산란을 위해 연안 내만으로 옮겨와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짝짓기를 하는 기간 동안 암수가 서로 마주 뿔을 비벼대며 화끈한 사랑을 불태운다고 한다. 그래서 짝짓기를 하며 비벼댄 뿔에 굳은살이 박이고 이 부분에는 쫄쫄쫄쫄한 사랑의 맛이 깃들여 있어, 대구뿔찜은 연인들이 즐기기에 좋은 담백하고 화끈한 음식이라 하겠다.

1670년경에 안동장씨(安東張氏)가 쓴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에 보면 “대구어 껍질을 삶아서 가늘게 썰어 무친 것을 ‘대구껍질채’라 했고, 대구껍질과 파를 길게 묶어 초간장에 밀가루 즙(汁)을 한 것에 찍어 먹는 것을 ‘대구껍질강회’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대구어로 구이, 전유어, 지짐이, 조림과 열간 자반 등을 해 먹었다. 우리는 이 외에도 대구어의 아가미와 창자를 가지고 창자 젓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이성우(李盛雨) 교수가 쓴 『한국요리문화사』에 기록된 마산이 고향인 이은상(李殷相)의 이야기에 보면 “어장(漁場)아비들이 대구를 산 더미처럼 배에다 잔뜩 싣고 항구(港口)로 돌아온다. 가난한 오막살이집도 대구 한 동강이쯤은 차례가 돌았지요. 대구 한 가지만 가지면 다른 반찬 백가지를 당한다는 마산 사람치고 대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생(膾)으로 먹고, 말려(乾) 먹고, 국(羹) 끓여 먹고, 전(煎) 부치고, 달여(湯) 먹고, 구워(燻) 먹고, 포(脯)도 뜨고, 김치까지 넣어 먹는다고 했다. 이렇게 살만 먹는 게 아니라 암놈 알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찌 먹기도 하고, 수놈의 대구곤(이리:魚白)은 호르몬 200%라 하거니와 창자니, 아갑지니, 심지어는 ‘깡다구’라는 이름은 등 뼈다귀까지 발라 먹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신봉사(全身奉社)라고나 할까?”라고 했듯이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마산의 대구어 요리가 다양했다고 한다.





배앓이

김태균
한의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대개 배탈을 일으키는 세균(박테리아)의 생존 온도는 영상 5도에서 60도 사이라고 한다. 따라서 겨울에도 실내에서 음식을 냉장고에 두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음식이 상할 수 있다.

간혹 식은 밥을 먹거나 뜨겁게 다시 데우지 않은 음식을 먹고 난 뒤 복통, 설사, 구토를 하며 괴로운 아침을 맞이하기도 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소화기능이 약하고 면역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배앓이를 하곤 하는데, '우리 애는 너무 약해. 자주 배앓이를 하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집에 남은 음식들이나 간식들을 우선 냉장 보관하고 데워서 먹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대개 상한 음식을 먹고 오는 경우, 메스껍고 토하고 미열이 나며, 복통·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또 감기몸살도 병행해서 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배앓이를 잘 일으키는 음식이 있는데, 생우유나 치즈, 과자, 피자, 핫도그 등등 먹다 남은 모든 음식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들을 따로 남겨 놓곤 하는데, 때론 가족애와 의리가 가족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음식을 남겨두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버리는 편이 훨씬 낫다. 또는 꼭 데워서 먹어야 한다. 최고의 음식은 그때그때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이다.

세균은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만일 1mm의 점을 찍고 그 안에 세균을 집어넣는다면 수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 식탁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게 되면 우리 수만 마리의 세균을 함께 먹게 되는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은 일단 더럽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과학이 발달하고 난 이후 현미경을 통해 본 미세(微細)한 세상 속에 수천만 마리의 세균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콜레라균, 충치균, 디프테리아, 한센병, 흑사병, 폐렴균, 결핵균, 장티푸스 등등 수없이 많은 균들이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 사람과 세균의 크기 비율(比率)은 달(moon)과 사람의 크기의 비율과 비슷한 듯하다.

배탈이 나면 먹게 되는 정로환(正路丸)이라는 약의 성분에는 감초(甘草 liquorice)가 들어 있다. 감초는 천연의 항생제이며 항바이러스제이다. 항생제이기 때문에 배탈에 쓸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독감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감초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시베리아, 몽골 등 많은 지역에 분포하는데 여러 병증에 다양하게 투여가 되고 있다.

겨울이 되면 감초가 들어가 있는 쌍화차(雙和茶)를 마시곤 하는데, 복통을 진정시키고 항균하는 작약과 여러 감기 증상에 효과가 좋은 계피 등이 들어가서 배앓이와 감기몸살에 좋은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 흔히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 외할아버님께서 한약방을 하셨는데, 처방을 보니 감초, 생강, 대추가 거의 들어가 있곤 했다. 그때는 약맛을 달게 하려고 넣는 줄 알았는데 공부해 보니 감초 속에는 별별 효과가 다 들어가 있다. 단지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먹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

난 어릴 때 늘상 배앓이를 했었다. 어린 시절 왜 그리 약했는지 늘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기도 잘했으며, 체력이 약해서 운동도 잘 못했다. 나의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서 그런지 다들 약한 편인데 배앓이도 가끔 하는 편이라 늘 음식을 조심하며, 요구르트나 배앓이에 좋은 음식과 한약을 종종 먹이곤 한다. 배앓이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키가 잘 크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에 차가운 음식은 피해야 배앓이 횟수가 줄어든다. 혹시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 피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섭생(攝生)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취업이라는 삶의 한 여정을 지나며



이소영
기사심의팀

연말이 되면 함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 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곤 한다. 그렇게 들뜬 사람들 사이로 빛나는 초형물들 앞을 걷고 있노라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하기도 했다.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 '취업준비생'이라는 애매한 신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먼저 취업한 선배들로부터 아직 어린 나이이니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라는 값진 조언을 듣기도 했지만,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그런 조언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공백기만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항상 조금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나 혼자만이 느낀 감정은 아닐 것이다. 갈수록 얼어붙어가는 취업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모두 비슷한 고민과 불안감을 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준비과정에 모범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중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상반기, 하반기 채용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채용 분위기 또한 취업준비생들을 힘들게 한다. '고스펙화'되어 가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소한 필기나 면접의 기회라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 아래 몇몇 기업은 이른바 스펙초월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입사지원서에서 스펙이라 할 수 있는 학점 및 어학성적과 자격증 등의 기재란을 없애고 기존의 서류 전형 대신 새로운 전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써서 제출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지원자들 간 상호평가와 인사담당자 등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필기나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형 방식에 대비해 준비하던 이들에게 갑작스런 스펙초월 채용은 오히려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평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에도 오랫동안 고민하는 이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비교적 장문의 글을 쓰고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기존의 서류 전형보다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를 할 당시 이러한 스펙초월 채용 이외에도 채용제도나 방식의 변화가 예고될 때가 종종 있었다.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았던 이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럴 때면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그에 대해 얘기하며 서로의 걱정을 공유하고 위로해주곤 했다. 요즘 그 친구들이 하나, 둘 합격 소식을 알릴 때면 같이 불안해하고 고민하던 시기가 생각나 감회가 새롭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공부에 매진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취업에 빨리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서류, 때로는 필기, 또 때로는 최종의 문턱에서 떨어지며 취업 준비시기를 생각보다 오래 이어가기도 하고, 이제 막 취업준비를 시작하고 시험 삼아 원서를 넣었다는 이들이 단번에 취업에 성공하기도 한다. 이를 보면 취업에 있어 물론 개인의 노력과 능력 등도 주요한 요소이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밑바탕에 쌓아두고 운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합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갈 때면 과연 그런 행운이 오는 날이 있을지 의심을 품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것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스스로를 믿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이에게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 홀로 거리를 걷다 보면 다시금 과거의 쓸쓸한 감정과 스스로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취업준비생들이 조금은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으며 취업이라는 여정을 잘 마치기를 바란다.



해외 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후기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최영훈 차장
총무팀

시찰 개요 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은 해외 유관기관 및 주요 언론사를 방문하여 그 나라의 언론현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살펴보고, 위원회의 제도를 소개하는 등 상호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4년도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7박 8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시찰자는 김길소 부위원장(강원중재부), 성지호 중재부장(서울제3중재부), 유의선 위원(서울제1중재부) 이상 세 분이었고, 필자는 사업 담당 기획팀의 윤치경 씨와 함께 수행자로 참여했다.

그 동안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을 주로 다녀왔고, 이번 방문국 두 나라는 처음으로 채택됐다. 방문 기관은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Malaya), 최초의 방송사 RTM(Radio Television Malaysia), 연방법원(Federal Court)이었고,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최대 영자신문사 The Straits Times 등 4곳이었다. 현지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 25℃ 정도로 고온 다습했다.

말레이시아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인구는 3천만, 다민족 다종교 국가이다. 민족 구성은 말레이계 60%, 중국계 25%, 인도계 7%의 분포를 보이고, 국교는 이슬람교, 공용어는 말레이어지만 중국계와 인도계는 각자 고유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영어가 널리 통용된다. 말레이의 독특한 영어 발음이 친숙하게 들려 아직도 인상에 남는다.



시찰단이 Tun Arifin Bin Zakaria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장(좌측 세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언론출판법’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제1여당이 최대 언론그룹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신문을 발행하려면 인쇄 자격과 출판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내부부장관이 출판 허가 갱신 거부, 유보 및 취소권을 갖는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14년 말레이시아 언론자유지수를 180개 국가 중 147위로 발표했다.

한편, 1998년에 설립된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Malaysia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는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독립 규제기관이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정보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고 한다. MCMC 산하의 불만처리위원회에서 블로그, SNS, 웹사이트 등 인터넷 콘텐츠로 인한 각종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서울보다 약간 큰 나라.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 13개 주 중에 하나였으나 1965년 독립했다. 따라서 여러 환경이 말레이시아와 비슷하다. ‘언론출판법’에 의해 책임 있는 기사를 쓰도록 하는 통제된 언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찰단이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방문해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해 간담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 프레스 홀딩스’가 10개의 신문사를 전부 소유하여 통합 관리하며, ‘싱가포르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5개의 TV 방송과 12개의 라디오 방송을 모두 소유 관리하고 있다. 출판 허가 및 매년 갱신제도, 언론자유지수(149위)도 말레이시아와 비슷하다.

올해의 동남아국 시찰은 2006년 유럽 시찰 시에 느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유럽에서는 한두 사람이 나와 다소 사무적인 말투로 응대하여 처음 방문지에서는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런 우려는 최초 방문기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방문처마다 우리 시찰단에 맞춰 고위 인사들이 미리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환대하고 대화를 성의껏 이끌어 주었고, 우리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었다. 간담 이후에는 다과까지 마련해 주어 그 나라 손님접대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와 가까운 동남아시아 나라들이어서 그런지 손님 접대 문화에서 우리와 비슷한 정성이 보였고 손님은 정(情)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한류 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와 사람들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의 최초이자 최대 방송국인 RTM에서는 우리 방문단의 모습을 촬영하고 부위원장을 단독 인터뷰하여 그날 저녁 뉴스에 방송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든지 스스로 변할 수 없었던 건 우리의 언론조정 중재제도가 우수하다고 강변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었다.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가 있고, 언론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조심스럽게 위원회를 안내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우리도 앞으로 언론환경이 변하게 된다면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듣는 정도로 큰 만족이었다. “Trima Kashi!¹⁾ 한국에 놀러오세요!”

1) 트리마 카시: 말레이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

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권, 갱신청구권 새로 도입해야

— 2014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개최 —



2014년 12월 4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잘못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피해구제수단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신청기한인 보도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나 기사가 복제되어 전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제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제수단으로 허위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청구권을, 사후에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갱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갱신청구권’이란 김 변호사가 만든 용어로, 원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업데이트 내용이나 링크를 원 기사에 붙이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인터넷의 블로그나 게시판 글의 실질적 내용이 기사인 경우라면 현행 6개월의 제척기간 없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손해배상금액 산정 요소로 잘못된 기사가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와 온라인상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링크 또는 복제글의 존재 여부 및 그 유포의 정도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은 “원래 아무 문제도 없던 기사인 경우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영향이 극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언론은 객관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보도를 하여야 할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임시조치’로 인해 잊혀질 권리가 이미 보장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미디어와 미디어가 아닌 정보에 대한 구분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인터넷 미디어의 경우 짧은 제척기간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삭제청구권과 갱신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언론사 및 관련 단체, 학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리 : 이재범 차장(기획팀)



① 김경환 변호사

②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왼쪽)과 새누리당 박창식 국회의원

CASES

명예훼손 사례

부적절한 제목을 사용해 독자의 이목을 끈 기사, 반론보도 게재

A신문은 지적장애인 폭행과 경영진의 보조금 횡령 및 배임으로 문제가 된 신청인 기관이 행정 당국의 폐쇄 조치에 저항하고, 행정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어 2015년에도 신청인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조정대상기사는 ‘도가니’라는 표현이 포함된 제목과 함께 보도됐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행정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한 것이지 시간을 끌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도가니’ 사건은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 있는 사건으로서 신청인 기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언론사가 사실 관계를 오해할 만한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뇌물수수 등 의혹 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로 직권조정결정

지역 모 주간지는 지역 농협 조합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났고 경찰이 농협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지인인 군수로부터 골프채를 빌려서 사용하고 이를 돌려줬으며, 농협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뇌물수수 부분은 반론보도, 압수수색은 정정보도를 권고했으나 언론사가 이를 거부하여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후 언론사가 결정을 수용, 다음 호에 보도가 게재됐다.

고소사건 보도에 대해 반론 및 추후보도 권유, 반론 등으로 조정성립

A 지면 및 인터넷신문은 모 시청 공무원 노조의 인사논평을 인용하여 당시 감사관인 신청인이 시 산하공단 직원의 개인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중재부는 시 공무원 노조의 인사논평만을 인용하여 보도해 신청인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하고, 신청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후보도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고 피신청인도 일부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여 신청인의 사과문 게재 요구를 수용했다. 양측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후 반론보도 및 사과문이 게재됐다.

초상권침해 사례

무단 초상 사용에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D방송사는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하였으며, 신청인이 세탁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지사나 본사에 책임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D방송사가 신청인의 초상을 몰래 촬영하여 사용한 것이고, 세탁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 결과 D방송사 ‘다시보기’ 코너에서 조정대상방송을 삭제하는 한편, 초상권 침해가 인정돼 신청인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박성목 _ 비록 페이지수는 적지만 모든 내용이 알차고 유익해서 직원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중 '신 동의보감' 갑상선 편을 읽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솔직히 갑상선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갑상선으로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는 항상 즐거운 마음과 건전한 사고방식, 스트레스 없애기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리라 맹세합니다. 내년에는 페이지수를 늘려주시고 후반부에 독자엽서를 첨부하여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영민 _ 올해의 마지막 '언론  사람'을 마주하니 여느 호보다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이 갑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후기' 칼럼에 소개된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강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설레임과 막중한 책임감에 대하여 기사 속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고스란히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타민 같은 일'이라는 기사의 제목처럼 회사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비타민이라 여기는 모습에서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란 무엇인지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 넘치는 언론중재 관련 교육과 강의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밝은 미소가 되어 주고 계시는 강사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정규석 _ 지방신문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언론과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쓰면서 알게 된 '언론  사람'을 관심 갖고 읽고 있습니다. 표지까지 합해도 16쪽이지만 '언론  사람'을 통해 언론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특히 12월호의 '2014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 중계'에서 다룬 '사건 본위에서 인간 본위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주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칼럼인 '내 안의 인문학'에서 "현대미술의 감상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보고 눈에 띄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그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한 부분은 그림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언론 또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학생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하고,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체험을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 언론분쟁 사례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 모의조정 실습
- 위원회 심리실, 언론사 등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 기간 : 겨울·봄방학 기간
- 시간 : 3시간
- 장소 : 위원회 강의실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 참고
edu.pac.or.kr
- 문의 : 교육운영팀 (02-397-3092~5)

※ 프로그램 내용은 선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